

“증가하는 공기관 대행사업 손질 필요”

제38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용범 “대행사업비 올해 3320억… 예산 낭비” 지적 고영권 “효율성·결과 평가 통해 개선책 마련하겠다” 1차산업 예산, 농민 실질 지원 위한 예산의 질 떨어져

지속 증가하는 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전수조사 등 손질 필요성 제기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24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고영권 정무부지사를 출석시켜 정책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은 공기관 대행사업비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김 의원은 “공무원 수와 인건비도 상승했지만 반대로 공기관 대행사업비도 2015년 1533억원에서 올해 3320억원으로 상승률이 100%가 훌쩍 넘는다”면서 “계속 이런 문제들이

제기됐지만 계속 증가하는 이유가 뭐냐”고 질타했다. 특히 김 의원은 “원 도정 들어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에따른 대행 수수료도 나가는데 예산 낭비”라면서 의회와 TF팀을 구성해 전수조사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을 피력했다.

이어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중문·애래동)도 공기관 대행과 민간위탁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만큼 전수조사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잘 살펴서 보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도 검토보고서를 통해 “행정기관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대행기관으로 위탁하고 있는 일부사업에 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4일 제2차 회의를 열고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상대로 정책 질의를 진행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해 필요성과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관련해 고 정무부지사는 “관행적으로 계속 맡기고 전문성, 효율성을 이우로 확장하면서 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전수조사를 통해 필요성과 효율성, 결과에 대한 평가 등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은 내년 제주 1차 산업 예산이 10%대를 회복했지만 실

질적인 농민 지원을 위한 예산의 질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도 농축산식품국의 감귤진흥과, 축산과, 동물방역과 예산이 줄어들었다면서 특히 도의 지방재정 운영방향 중 재원배분 중점에 ‘미래제주 지역경제의 버팀목 감귤산업 육성’이 있지만 감귤진흥과의 예산은 지난 4년간 연평균 5.6% 감소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오른기자 ejoh@ihalla.com

“도정 청년 정책 포기?”… 적극재정 의지 미흡

행정자치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서 질타 이경용 “보조금 부서 전략”

제주특별자치도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주도의 적극재정 의지 미흡이 지적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24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기획조정실 등을 상대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이경용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서흥·대륜동)은 행정위 소관 부서 중 도 청년정책담당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을 지적하면서 청년정책 추진 의지 부족을 추궁했다.

이 의원은 “내년도 예산은 52억 9000만원으로 올해 예산 106억 9800만원 대비 54억원이 감소했다”면서 “청년정책을 포기한거냐”고 질타했다.



이경용 의원, 문준태 의원, 강철남 의원.

특히 이 의원은 청년정책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있음에도 청년담당관의 직접 수행 사업이 감소해 사실상 ‘보조금 정산 부서’로 전략했다고 주장했다. 또 1000만원 이상 중앙지원사업 내역 중 국비확보액이 3500만원에 불과해 국비 확보 미흡도 문제삼았다.

이 의원은 “예산은 줄이고 직접사업도 수행하지 않고, 결국은 보조금만 정산하는 청년정책담당관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면서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문준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시 일도1·이도1·건일동)은 제주도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대비 0.12% 증가하면서 확장 재정 기초는 유지됐지만 좀 더 증액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의구심을 표했다. 여력이 있음에도 재정 확보 의지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문 의원은 지난 2014년 이후 연도별 예산 증가율이 보통 전년대비 6~7%대 증가하지만 지방선거가 있었던 2018년과 총선이 있었던 올해 각각 13%, 10% 증가한 점을 언급하면서 “선거때면 그 전해에 비해 과하게

예산이 증가한다. 선거를 의식한 심심 예산이 편성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의회서 꾸준히 제기했는데, 이런 추이를 보면 2022년에 또 과하게 예산이 높아질 수 있다”며 “그러면 올해 예산 증가율이 0.1%인데 더 증액할 수도 있었지 않겠냐 하는 지적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지금 시점에서 내후년까지 예측은 맞지 않는 부분 있다”면서 “내년 경기가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 내후년 예산 규모가 결정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읍)은 조직별 예산증감 현황 분석 결과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읍면동 예산이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향후 재배정을 통해 업무부담을 읍면동에 전가하는 행태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드러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도가 행안부의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 분석에서 전국 꼴찌 수준인 16위를 기록했지만 담당부서가 기획조정실장에게 보고를 누락하고, 의회에도 개선방안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의도적으로 숨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창일, 제주-일본 가교 역할 기대감 솔솔

주일 대사 내정에 관심 집중

국내 정치권의 대표적 ‘일본통’인 강창일 전 의원이 주일 대사로 내정되면서 경색된 한일 관계 개선을 이끌어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가운데 제주출신으로서 제주와 일본 간 교류의 가교 역할도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정치인 출신 강 내정자가 한일의원연맹 회장 등 오랜 기간 쌓아온 경륜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일본이 전향적인 태도로 나설 수 있도록 견인자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대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일 정치 상황과 대일관계에 대해 깊은 식견이 있는 강 내정자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 발표된 이번 인선은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한 우리 정

부의 외교적 신호”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강 내정자가 한일의원연맹 회장 등을 역임하며 오랜 기간 쌓아온 경륜을 한일관계 개선에 쏟아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한일 관계 개선은 지금 양국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제주에서 내리 4선 국회의원인 강창일이 제주와 일본의 발전적 관계를 수립하는 가교 역할에 대한 기대도 나온다.

제주 국회의원 의원실 관계자는 “일본에서 자리잡은 재일교포 2, 3세대들이 고향 제주에 투자하고 싶다는 의향을 여러 경로로 전해오는데, 아직까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며 “투자 유치나 관광 등 제주와 일본 간 각종 교류에 있어서도 강 내정자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회·부미헌기자 bu8385@ihalla.com

제주해안 최대 플라스틱 쓰레기는 ‘삼다수’

“기업의 사회적 책임 필요”

제주 해안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쓰레기는 제주도개발공사가 생산하는 삼다수 페트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21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제주시 내도동 앞바다에서, 제주시 김녕해수욕장 등에 버려진 플라스틱 재질의 해양쓰레기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 기간 232.5kg의 플라스틱 재질 쓰레기를 수거해 제품명과 제조사명을 확인할 수 있는 190개를 추려내 분석했다. 분석 결과 가장 많이 버려진 플라

스틱 쓰레기의 제품명은 제주도개발공사의 제주삼다수로 20개가 발견됐다. 이어 11개가 발견된 하이트진로 의 참이슬, 각각 7개가 발견된 동아오츠카의 마신다와 동서식품의 맥심 커피믹스 순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조사결과를 기업들이 쓰레기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순위로 볼 순 없지만 시장 점유율이 높은 브랜드가 소비자에 의해 많이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비추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무겁다”며 “특히 플라스틱으로 인한 심각한 해양환경오염을 고려한다면 포장 재질의 변화나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기업의 책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기자

영리법인 허가취소처분 항소심 제주도, 정부기관과 공동 대응

제주특별자치도는 녹지국제병원 항소심에 대해 정부기관과 공동 대응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그룹) 측이 지난 달 20일 있었던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대응 체계를 준비해 왔다.

녹지그룹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조건취소 취

소소송’과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등 2건이다.

제주지방법원은 1심에서 제주도의 후행 개설허가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또 선행 허가조건 취소 청구는 개설허가취소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선고를 연기했다.

제주도는 지난 23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했다. 항소심부터는 정부와의 긴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법무공단과 공동으로 재판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백규택기자

2020 제3회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 대토론회

코로나19 이후 제주해양수산산업의 대응전략

일시 2020. 12. 1. [화요일] 개회 14:30 ~ 폐회 18:00
장소 메종글래드제주 크리스탈룸(제주시 노연로 80)
유튜브(Youtube)에서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 검색 시 생중계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해양수산산업은 전지구적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 온난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적인 여건변화 등으로 어선어업, 양식어업, 마을어업 및 수산물 가공유통 등 각 분야에서 커다란 난관에 봉착해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및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이 공동으로 분야별 현재의 실태를 진단하고 코로나19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응전략을 선제적으로 강구하기 위하여 대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인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11월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 ·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 대표이사장 김석중 / 공동이사장 한용선 / 강문수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현길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성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대표 송창권

시 간	내 용
14:00~14:30	▶ 등록
개회식 14:30~15:00	▶ 국민의례
	▶ 개회사 : 김 석 중 (사)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 대표이사장 ▶ 축 사 : 현 회 롱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좌 장 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장 ▶ 인사말 : 현 길 호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송 창 권 제주도의회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대표 한 용 선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협동조합장 협의회장
15:00~15:10	▶ 기념촬영 및 휴식
주제발표 15:10~16:30	▶ 어선어업분야 : 코로나19 이후 어선어업의 대응방안 이 광 남 해양수산정책연구소 소장
	▶ 양식어업분야 : 스마트 양식산업 마 창 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부 실장
패널 및 종합토론 16:40~18:00	▶ 마을 및 해녀어업분야 : 코로나19에 따른 마을어업의 동향과 향후 과제 최 만 석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 수산물 가공유통분야 : 코로나19 이후 수산물가공식품 생존방안 오 영 철 국제대학교 교수
16:30~16:40	▶ 휴식
18:00~	[좌 정] 조 정 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장 [토론자]
	▶ 해양수산정책 : 양 용 식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장 ▶ 어선어업분야 : 홍 석 회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주협의회회장 ▶ 양식어업분야 : 오 동 훈 제주어류양식수협 상무 ▶ 마을 및 해녀어업분야 : 이 기 철 전국어촌계장협의회 제주지역회장 ▶ 수산물 가공유통분야 : 김 영 선 가공유통협의회회장
18:00~	▶ 개별 토론 및 만찬

대표이사장 김석중 010-3698-3411 | 전문위원 김 준 태 010-3697-3963
공동이사장 한용선 010-9687-6605
공동이사장 강문수 010-4115-3019
사무국 김성현 010-3693-9117

*유튜브(Youtube) 생중계 및 동영상으로 중계예정이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 주최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정책포럼 ·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전액무료 매월최대 400,000 지급

순사: 약원방문 상담 → 고용센터

(내선)전기공사 기능인 양성 및 전기기능사 자격취득 과정

대상 - 모집 조기마감될수있음
구직자 / 재직자 / 영세사업자 등
- 7개월(09:00~16:00) 성실하게 수료하고
고용보험 취업가능 하신분
- 일정 소득이상 특수고용자, 자영업자,
대기업종사자,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학생 등 제외

교육기간
근시일 개강예정 - 7개월 과정 - 개강일 변경 연장될 수 있음

교육시간
09:00~16:00, 1일 6시간 (주5일 교육)

교육내용
전기기능사, 배관배선공사, 약전, 동력설비, 소방설비 등

필요서류 : 내일배움카드
(카드신청후 수령까지 6주이상 기간 소요됩니다.)

취업 | 2019년 7월 종료과정 전원취업

(주)제원직업전문학교

Tel. 749-3434 | jejuwon.com

2021년도 한라일보 갤러리ED 대관계획 공고

한라일보 갤러리ED에서는 미술 분야의 우수한 작품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도민들에게 다양한 미술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1년도 대관계획을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개인 및 단체들의 신청을 바랍니다.

대관계획 절차

사전 문의 | 대관 신청서 접수 | 대관 심의 적정 여부 및 일정 조정 | 대관 여부 통보 | 대관계획 체결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한라일보 1층

대관문의 | 064)750-2543

Gallery ED